

#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에 의한 국가경쟁력 요인분석

## Analysing the factors affecting national competitiveness using a System Dynamics Model

최영출\*\*

Young-Chool, Choi\*\*

###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develop a model for analysing the relationships among the factors affecting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o explore the future trend of Korea's national competitiveness using a system dynamics approach. For this purpose the article examines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ndexes being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IMD and WEF. The article also demonstrates how national competitiveness may be strengthened and finally suggests that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should be studied systematically in the future.

**Keywords:** 시스템다이내믹스, 국가 경쟁력  
System Dynamics, national competitiveness

\* 이 논문은 2006학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ycchoi@chungbuk.ac.kr)

## I. 서론

국가경쟁력(national competitiveness)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국가경쟁력에 대한 정의는 그 자체가 대단히 어렵고 다의적이어서 정의를 내리는 기관이나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을 학문적, 정책적 목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공표하며 나아가서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제 국제적으로도 당연한 것으로 되었다. Wikipedia 사전에서는 국가경쟁력은 넓은 의미로, 한 나라의 경제적 경쟁력(economic competitiveness)을 의미하는 것으로 넓게 정의하고 있다. 한편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는 한 나라의 생산성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 정책 및 제도들의 집합체로서 정의한다(WEF, 2006). 국가경쟁력개념에 대해서는 정의하는 기관에 따라 다소 다르긴 해도 대체적으로 볼 때, 보다 경쟁력이 있는 경제일수록 그들의 시민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소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WEF, 2006: 3)는 견해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국가경쟁력 순위 변화추이는 경쟁력이 있는 경제와 경쟁력이 무너진 경제는 서로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웅변해 주고 있다 (정진호, 2000). 우리나라는 역대정부 들이 모두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다른 나라 역시 더 빨리,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해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경쟁력은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서, 여러 나라들은 그들의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http://www.competitiveness.ie/>), 크로아티아(<http://konkurentnost.hr/nvk>), 그리스(<http://www.antonistita.gr/>(2003) 및 필리핀([http://business.inq7.net/money/breakingnews/view\\_article.php?article\\_id=26213](http://business.inq7.net/money/breakingnews/view_article.php?article_id=26213))(2006) 등 나라들은 경쟁력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자문기관 또는 특별정부기관을 설치하고 있는 나라들의 예이다. 국가경쟁력은 특히 작은 나라들에게 있어서 중요성이 더하다. 이러한 나라들은 무역 및 외국의 직접투자에 의존하여, 생산성증가에 필요한 규모(scale)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 국가경쟁력위원회(The Irish National Competitiveness)는 경쟁력 피라미드 구조를 이용하여([http://www.competitiveness.ie/ncc/about\\_competitiveness.html](http://www.competitiveness.ie/ncc/about_competitiveness.html))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단순화해 주고 있다. 또한 국가경쟁력에 대한 국제적 비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세계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및 국제경영개발원(The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http://www.imd.ch/>)에 의한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http://www.imd.ch/wcy>)) 등에 의해서 매년 발표되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경쟁력 분석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학문적 정책적 논쟁을 해 오고 있다.

국가경쟁력 지수는 전술하는 바와 같이 여러 기관들에 의하여 평가되어 발표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는 것 같다. 국가경쟁력 순위 그자체도 중요하지만 경쟁력을 구성하는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해 보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처방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쟁력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연구되어오지도 않았으며 연구된 경우에도 기술수준에서 순위비교에 치중한 감이 없지 않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인식하에서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시스템다이나믹스 방법론을 통해서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가경쟁력 결정요인에 대한 학문적 연구나 더 나아가서 국가경쟁력을 국가적 수준에서 정책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주고자 한다.

## II. 국가경쟁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2차 세계대전이후로 세계 경제의 전환에는 많은 과정들이 기여를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국경의 개방은 국제적 교역의 확장을 가져왔으며 자원배분에 있어서도 의미있는 효율성 증기를 발생시켰다고 할 수 있다(World Economic Forum, 2006). 제화와 서비스, 자본과 노동의 흐름에 대한 장애의 제거는 항상 질서정연한 것은 아니었으며 각자 나라의 형편이 다름에 따라 다양한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날 이러한 장애의 제거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 문제가 세계적 경제성장의 중요한 추진체로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와의 강력한 연계는 국내 생산자들에게 국제경쟁이라는 귀중한 원칙을 제시해 주었고 많은 자본과 경험을 가져오게 해 주었다. 결국 이는 효율성 증대를 통한 성장기대를 강화시켜 주었다.

생산활동을 추구함에 있어서 경제효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제지표를 생산성(productivity)이라고 이해할 때, 생산성을 통해서 생산력을 파악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성의 경우 순수한 경제활동에 국한되기 때문에 한 국가의 생산수준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이현재, 2004). 따라서 한 국가의 총체적 경제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필요성으로 나타난 것이 국가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은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국가경쟁력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그 결과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국가적 순위가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회과학평가방법론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수행했고 현재는 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간하는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의 공동주관자의 한 사람인 Porter(1990)에 의하면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차원의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경쟁력을 비교하는 연구의 본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Krugman(1994a, 1994b)은 국가경쟁력 개념의 허구성을 주장하면서 국가경쟁력 자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한 국가의 생산수준을 파악하는데 생산성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지만 국가경쟁력과는 전혀 무관한 개념이며 단지 오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이현재, 2004).

그는 나아가서 국가 경제적 복지는 경제의 거래 및 비거래 분야들의 생산성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고 지적한다

(<http://www.foreignaffairs.org/19940301faessay5094/paul-krugman/competitiveness-a-dangerous-obsession.htm>).

이와 같이 국가경쟁력 개념의 유용성에 대해서 찬반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실무자들의 경우 방법론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국가경쟁력 개념의 필요성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최영출, 2006).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경쟁력에 관한 연구들은 많이 있어 왔다. 이는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국가경쟁력 순위 그 자체에 대한 연구이며 두 번째는 국가경쟁력수준과 타 부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가령,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 (김박수 외, 1999),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분석’ (왕윤중외, 1999), ‘한국경제의 글로벌 국가경쟁력’ (정진호, 1997) 등의 연구가 첫 번째 부류의 대표적 연구이다. 두 번째 부류의 연구로는 ‘패널자료에 의한 생산성과 국가경쟁력 비교분석’,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김원배, 2003), ‘3대 특별법의 성공적 추진전략과 국가경쟁력 강화’ (김용웅, 2004), ‘국가경쟁력과 노사관계 생산성 제고방안’ (이영면, 2003) 등과 같이 국가경쟁력과 타 부문과의 연관성을 전제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타 부문이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 가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국가경쟁력에 대한 기존의 국내 연구경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경쟁력 면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순위자체 문제나 타 분야와의 연관성 등에 대한 연구는 있어 왔으나 국가경쟁력에 실제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가경쟁력개념이 방법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어떠한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지표들 사이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지표들은 경제적, 비경제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망라하여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행정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행정적 요소들과 특히 관련성이 있는 지표중심으로 인과관계를 단순화하여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해 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III. 국가경쟁력 결정요인 변수

#### 1. 세계경제포럼에 의한 경쟁력 결정요인

국가경쟁력 결정요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이를 측정하는 기관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어,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경쟁력 지수를 9개의 기둥(pillar)으로 나누고 각 기둥별 구성 요소들을 구분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WEF, 2006).

##### 1) 기둥 1 : 기관

###### (1) 공공기관

공공기관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들이 포함된다.

- ① 재산권
- ② 윤리와 부패
  - 공적자금의 전용
  -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신용
- ③ 부정당한 영향
  - 사법부의 독립
  - 정부공무원의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편애주의(favoritism)
- ④ 정부의 비효율성(레드테이프, 관료제 및 낭비)
  - 정부지출의 낭비성
  - 정부규제의 부담
- ⑤ 안전성
  - 테러리즘에 대한 비즈니스 비용
  - 경찰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 범죄와 폭력에 대한 비즈니스 비용
- 조직화된 범죄

## (2) 민간기관

- ① 조직의 윤리
  - 기업의 윤리행태
- ② 조직의 책임
  - 기업내 위원회의 효율성
  - 소수 주주이익의 보호
  - 감사 및 보고 수준의 강력함

## 2) 기둥2 : 인프라

- (1) 전체적인 인프라의 수준
- (2) 철도 인프라 개발수준
- (3) 항구인프라 수준
- (4) 항공교통 인프라 수준
- (5) 전기공급 수준
- (6) 전화라인

## 3) 기둥 3 : 거시경제

- (1) 정부잉여/결손
- (2) 국가저축률
- (3) 인플레이션
- (4) 이자율
- (5) 정부부채/GDP 비율
- (6) 실질환율

## 4) 기둥 4 : 보건과 초등교육

- (1) 보건
  - 말라리아의 중기 비즈니스 영향
  - 결핵의 중기 비즈니스 영향
  - 에이즈의 중기 비즈니스 영향

- 유아 사망률
- 평균수명
- 결핵확산정도
- 말라리아 확산정도
- 에이즈의 확산정도

## 5) 기둥 5 : 고등교육과 훈련

### (1) 교육의 양

- 총 중등교육 등록자수
- 총 고등교육 등록자수

### (2) 교육체계의 수준

- 교육체계의 수준
- 수학과 과학교육의 수준
- 경영학교의 수준

### (3) 실무교육

- 전문화된 연구와 훈련서비스의 지방이용가능성
- 직원훈련 정도

## 6) 기둥 6 : 시장 효율성

### (1) 재화시장 : 왜곡, 경쟁 및 규모

#### ① 왜곡

- 농업정책 비용
- 법적 프레임워크의 효율성
- 조세의 정도 및 효과
- 기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절차의 수
- 기업을 시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 ② 경쟁

- 국내경쟁
- 지방경쟁의 정도
- 반트러스트 정책의 효과성

- 외국경쟁
- 수입
- 교역장애물의 존재
- 외국인 소유제한

③ 규모

- 지방시장
- GDP-수입+수출
- 외국시장(수출)
- 수출

(2) 노동시장: 융통성 및 효율성

① 융통성

- 채용 및 해고 제도
- 임금결정의 융통성
- 노사관계의 협력성

② 효율성

- 전문경영에 대한 의존
- 임금과 생산성
- 두뇌유출
- 여성들의 민간부문 고용정도

(3) 재정시장: 정교함 및 개방성

- 재정시장의 정교함
- 대출이용의 용이성
- 벤처자본 이용가능성
- 은행의 건전성
- 지방의 주식시장 접근성

7) 기둥 7 : 기술적 준비성

- 기술적 준비성
- 기업수준의 기술 흡수
- ICT 관련 법률



- 외국인 직접 투자 및 기술이전
- 휴대폰
- 인터넷 이용자수
- 개인용 컴퓨터 수

## 8) 기동8: 비즈니스 정교함

### (1) 네트워크 및 지원산업

- 지방공급자 양
- 지방공급자 수준

### (2) 기업활동 및 전략의 정교함

- 생산과정 정교함
- 시장정도
- 국제분배에 대한 통제
- 권한위임의지
- 경쟁적 이점의 성격
- 가치사슬의 존재

## 9) 기동 9 : 혁신

- 과학연구기관의 수준
- 연구 및 개발에 대한 기업의 지출
- 대학-산업 연구협력
- 첨단기술산물의 정부조달
- 과학자 및 공학자들의 이용가능성
- 특허수
- 지적재산권 보호
- 혁신능력

등이다. 즉, 9개의 기동과 이 속에 포함되는 요소들이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인들이 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IMD에 의한 경쟁력 결정요인

스위스에 있는 국제경영개발원(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에서는 매년 세계 경쟁력 연감(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을 발표하고 있으며 여기에도 여러 가지의 경쟁력 결정요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IMD, 2006).

### 1) 경제적 성과

- 국내경제
- 국제교역
- 국제투자
- 고용
- 물가

### 2) 정부효율성

- 공공재정
- 재정정책
- 제도적 프레임워크
- 비즈니스
- 입법
- 사회프레임워크

### 3) 비즈니스 효율성

- 생산성
- 노동시장
- 재정
- 경영
- 태도 및 가치

### 4) 인프라

- 기본인프라
- 기술인프라

- 과학인프라
- 보건 및 환경
- 교육 등이다.

### 3. 기타

중국 사회과학원은 계량경제학적 측면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력과 인구, 영토의 넓이, 군사력, 외교력, 자연자원, 정부의 거시경제 조정능력, 정보통신 등의 지표를 분석해 10대 주요 국가의 순위를 매겼다. 이번 주요국의 경쟁력 조사에서 GDP와 기술력, 인력자본, 자본력, 정보력, 자연자원, 군사력, 외교력, 정부조정능력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사용되었으며 IMD나 WEF,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연구원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하고 있는 교육이나 환경부분의 주요지표는 사용되지 않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사회과학원은 2006년 발표된 조사를 위해 중국과 대만의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해 자체 개발한 틀과 방법으로 비교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평가대상 국가 선정과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한편, ICRA(International Centre for Development-oriented Research in Agriculture)에서는 경쟁력분석을 위해서는 3가지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첫째는 상품체제가 현재 경쟁력이 있는 곳에서는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행해 질 수 있는가? 둘째, 체제가 경쟁력이 있지 못한 곳에서는 이러한 체제를 경쟁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 무엇이 행해 질 수 있는가? 셋째, 경쟁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발전조치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가?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경쟁력을 유지시키든지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고 하겠다.

## IV. 국가경쟁력 결정요인 인과관계와 변화예측

### 1. 국가경쟁력 결정요인의 인과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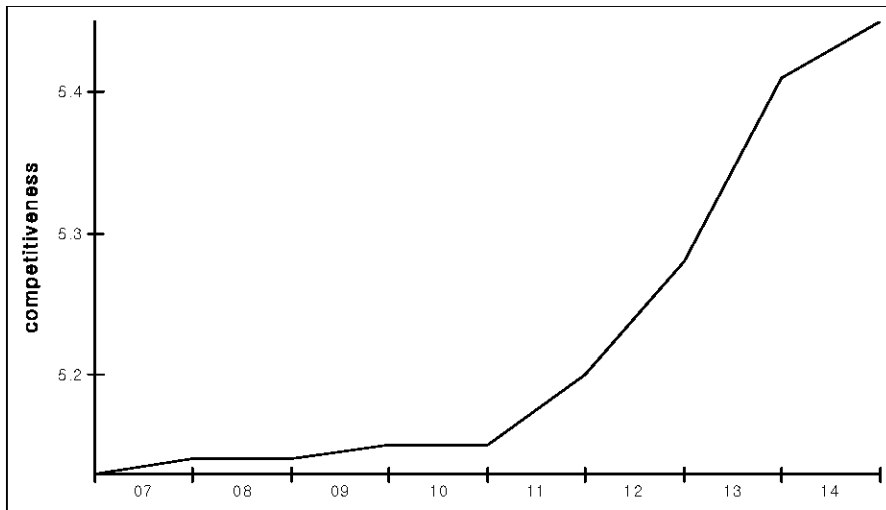
이상에서 논의한 국가경쟁력구성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존 선행연구들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이들간의 변수간 인과관계를 구성해 보기로 한다. 최종변수를 국가경쟁력으로 하고 나머지 변수들의 관계를 이용하여 아래 [그림 1]과 같은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변수들과 이들 간의 변수간 관계를 잠정적으로 제시해 본다.



hard data로 구성되어 있다. 각 기관별 국가경쟁력지수와 하위변수값의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한 단위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는 바 대부분의 자료가 WEF에서 발간되는 자료로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기본으로 한다. 즉, 최고값은 7이며 최하값은 0이다. 값이 7로 가까워질수록 경쟁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 자료에서는 국가경쟁력지수가 5.13으로서 24위, 2005년 자료에서는 5.28로 117개국중 19위를 차지한 바 있다.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데에는 정부가 가진 자원이나 정책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들-정부지출, 정부의 규제수준, 정부의 시장개입정도-를 변화시켜서 시나리오를 구성하기로 한다. 정부지출의 경우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정부의 공식통계는 28.1%이나 중앙일보 2006년 4월 6일자 신문에서 학계 발표 자료를 이용하면 37.9%로서 작은 정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 부문에 관련한 공식통계자료는 공사나 공단에 관한 자료가 대부분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일보에서 인용한 학계의 자료를 인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 1) 시나리오 1

시나리오1은 정부지출, 정부의 규제수준, 정부의 시장개입정도 중에서 3변수를 모두 이용하여 지금보다 약 10%씩 더욱 친 시장중심적으로 정책을 바꾸는 것을 가정한다. 즉, 정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보다 10%씩하고, 정부의 규제수준을 현재의 8100건에서 10%축소하며, 정부의 시장개입정도를 10%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2007년부터 예상되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지수변화는 아래 [그림 2] 및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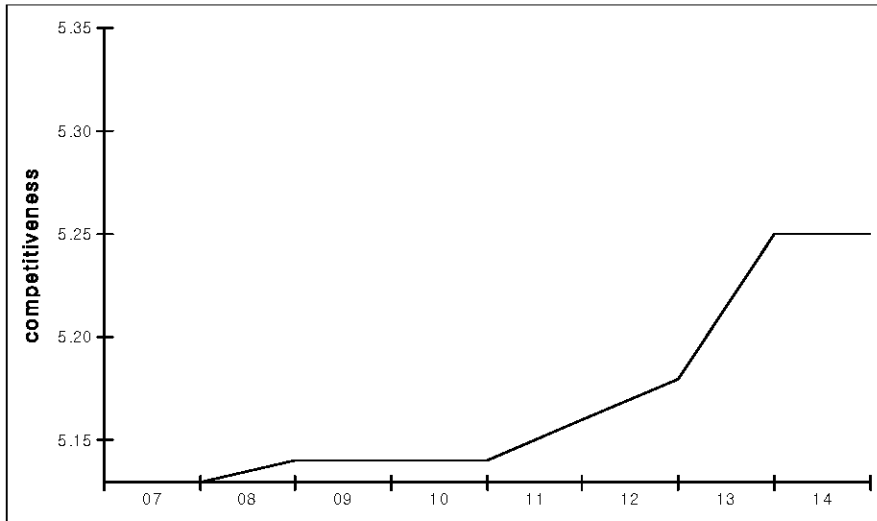
[그림 2] 시나리오1의 국가경쟁력 변화추이

[표 1] 경쟁력 변화도표(1)

Time	competitiveness
2007년 1월 1	5.13
2008년 1월 1	5.14
2009년 1월 1	5.14
2010년 1월 1	5.15
2011년 1월 1	5.15
2012년 1월 1	5.20
2013년 1월 1	5.28
2014년 1월 1	5.41
2015년 1월 1	5.45

## 2) 시나리오2의 국가경쟁력 변화추이

시나리오2는 정부의 재정지출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현재의 정부의 규제수준과 시장개입 정도의 비중을 지금보다 10%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나타나는 국가경쟁력 변화추이는 아래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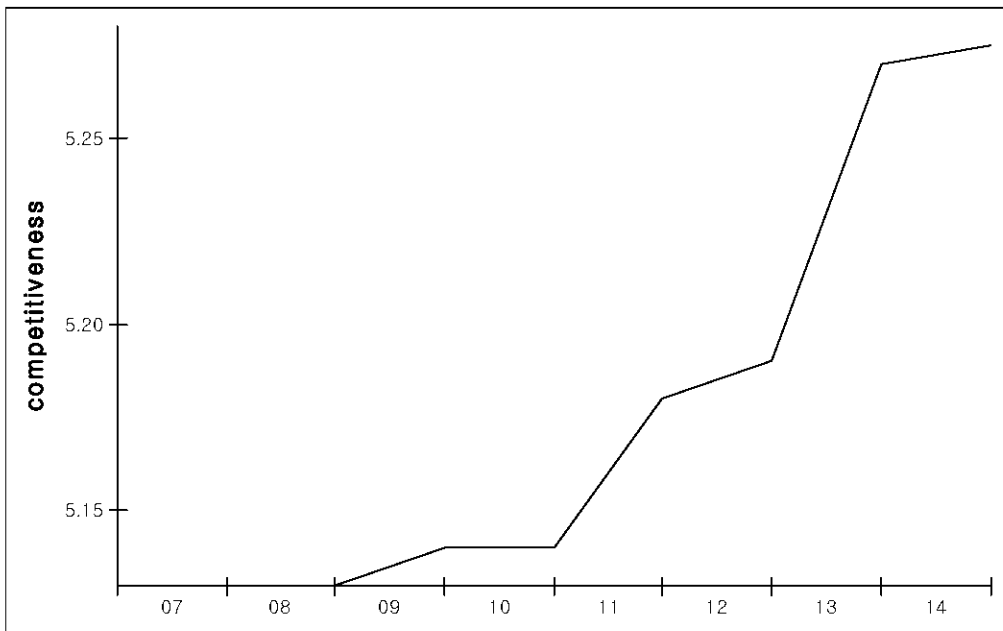
[그림 3] 시나리오2의 국가경쟁력 변화추이

[표 2] 경쟁력 변화도표(2)

Time	competitiveness
2007년 1월 1	5.13
2008년 1월 1	5.13
2009년 1월 1	5.14
2010년 1월 1	5.14
2011년 1월 1	5.14
2012년 1월 1	5.16
2013년 1월 1	5.18
2014년 1월 1	5.25
2015년 1월 1	5.25

### 3) 시나리오3의 국가경쟁력 변화추이

시나리오3은 정부의 재정지출과 정부의 규제수준을 그대로 두고 정부의 시장개입정도를 현재보다 약 20% 축소하는 것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나타나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변화 추이는 아래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시나리오3의 국가경쟁력 변화추이

[표 3] 경쟁력 변화도표(3)

Time	competitiveness
2007년 1월 1	5.13
2008년 1월 1	5.13
2009년 1월 1	5.13
2010년 1월 1	5.14
2011년 1월 1	5.14
2012년 1월 1	5.18
2013년 1월 1	5.19
2014년 1월 1	5.27
2015년 1월 1	5.28

이상의 시나리오별 국가경쟁력 변화추이를 보면 3가지 변수의 적절한 변화를 통한 시나리오 3이 국가경쟁력의 연도별 가장 큰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정부재정지출규모를 축소하고, 정부의 규제수준 및 정부의 시장개입정도를 축소하는 정책, 다시 말하면 시장친화적 정책을 활용하는 경우 가장 큰 국가경쟁력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가정된다. 시나리오 2는 정부의 재정지출은 그대로 두고 정부의 규제수준과 정부의 시장개입정도를 변화시키면서 친 시장 정책화하는 것인데 이 역시 국가경쟁력 변화를 긍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 시나리오3은 정부의 시장개입정도만 기존보다 20% 축소하는 것으로서 시장친화적인 폭을 시장개입을 줄임으로써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이 경우 해를 지날수록 경쟁력 변화폭이 크게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2006년 자료에 의한 것은 2005년 자료에 의한 것 보다 오히려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친화적 정책의 부재 내지 약화로부터 온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이를 개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있어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변수들을 가동시키는 경우 정부의 재정지출 축소, 정부의 규제수준 축소, 정부의 시장개입정도 축소 등을 통한 대폭적인 친시장경제적 정책을 촉진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제기구들에 의한 국가경쟁력 구성 변수들 및 변수들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들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국가경쟁력에 대한 개념정의의 다양성, 국가경쟁력 개념에 대한 무용론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기구나 경쟁력을 연구하는 학계에서는 한 나라의 발전의 원천을 국가 경쟁력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지난 몇 년간은 국가경쟁력이 오히려 저하되어 가고 있음이 국제통계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시장친화적 정책의 부재 내지 약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시장친화적 정책수단들의 적절한 조합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적극적 방안모색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 [ 참고문헌 ]

- 국무조정실·경쟁력평가원(2005), 2005년도 IMD·WEF 국가경쟁력 비교분석.
- 김용웅. (2004). 3대특별법의 성공적 추진전략과 국가경쟁력 강화. 「국토」, Vol. 269.
- 김원배. (2003).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국토」, Vol. 161.
- 김정민 외(2001), 기술적 효율성에 근거한 국가경쟁력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조직학회」, 제9권 제2호.
- 박영구. (1998). 교육과 산업경쟁력. 「국제지역연구」. Vol. 2, No. 2.
- 박희봉, 김명환. (2000).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능력. 「한국행정학보」, 제34권 제4호
- 이영면. (2004). 국가경쟁력과 노사관계 생산성 제고방안. 「생산성논집」 Vol. 18, No.1.
- 이현재. (2004). 패널자료에 의한 생산성과 국가경쟁력 비교분석. 「산업경영연구」 제27권 제2호.
- 장석기. (2003). 대학원 교육의 개선과 그 발전방향에 대한 소고. 「해양대학논문집」 Vol. 12.
- 정진호. (2000). 「국가경쟁력: 어떻게 평가하고 무엇으로 키우나」. 서울: 지정출판사.
- 왕윤중 외.(1999).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영출. (2004). 지역의 사회자본 측정지표설정. 「지방정부학회보」, 제8권 제3호.
- 최영출. (2003). 로컬거버넌스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지방행정연구」, 제18권 제1호.
- 최영출. (2006).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0권 제1호.
- ICRA. (2005). Competitiveness and Comparative Advantage. ICRA Learning Materials.
- IMD. (2006). 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IMD. Geneva, Switzerland.
- Antonlo Furino.(1988), Cooperation and competition in Global Economy,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 P. J. Buckley, et. al.(1988), "Measures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 Critical Survey," *Journal of Marketing Management*.
- Fukuyama, F. (2000). Social Capital and Civil Society. IMF Working Paper, 제/00/74. IMF.
- Kaufmann, D, Kraay, A. Mastruzzi, M. (2005). Measuring Governance Using Cross-Country Perceptions Data, The World Working Paper.
- Hall, R. and Jones, C. (1999). Why Do Some Countries Produce So Much More Output Per

- Worker than Other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4, No. 1.
- Partha, D. (2000).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Idea of Social Capital, in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ed by Ismail Seragelding and Partha Dasgupta, World Bank.
- Stephane Carelli.(2004), "Competitiveness of Nations: The Fundamentals,"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3*, IMD, pp702-713.
- Ciampi et. al.(1995), "Enhancing European Competitiveness," Report to the President of the Commission, the Prime Ministers and the Heads of State, Competitiveness Advisory Group, EU.
- Krugman, P. (1994a). Competitiveness: A Dangerous Obsession, *Foreign Affairs*, Vol. 73, No.2.
- Krugman, P. (1994b). *Peddling Prosperity: Economic Sense and Nonsense in the Age of Diminished Expectations*, W.W. Norton&Company.
- Porter, M.E.(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The Free Press.
- Porter, M.E.(1999), "The microeconomic foundations of economic development",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WEF.
- World Economic Forum. (2006).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5-2006*, WEF. Geneva: Switzerland.